

## 『더블린 사람들』에 나타난 경제적 종속

— 'simony'에 대한 새로운 시각 —

남 기 현

### 1

문학에서 경제문제를 다루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다. 오랜 문학적 전통과 비평의 습관으로 문학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것이라는 묵계 같은 것이 있어왔고, 작가나 예술가는 금전적인 면에서 초연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왔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조이스가 스스로 밝힌 의도로 인해 『더블린 사람들』의 주제가 아일랜드의 정신적인 마비라는 것이 비평적 공리(axiom)처럼 여겨지고 있다(Letters II, 134). 따라서 조이스의 작품에서 경제문제를 다루는 일은 더욱 드문 현상이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조이스는 스스로 사회주의에 관심이 있었음을 말한 적이 있다: “나의 정치적 견해를 보편적 박애주의자의 견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반대로 사회주의 예술가의 것이다”(Ellmann 197). 이러한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은 필연적으로 경제 현실의 인식에서 비롯되었고, 분명히 그의 예술론에도 배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가 “고립은 예술적 경제의 첫 번째 원리이다”(isolation is the first principle of artistic economy)(CW 61)라고 말한 것도 인간의 고립과 소외를 경제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이스에게 있어서 경제적 조건 혹은 더 구체적으로 돈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또한 조이스는 아일랜드의 경제적 현실

을 어떻게 작품 속에 수용하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들은 조이스의 초기 작품인 『더블린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갖게 된다. 또한 돈 기포드(Don Gifford)가 지적하듯이, “조이스는 금전적 가치를 [...] 등장인물의 태도나 위상의 지표이며 실마리로 사용한다. 가치평가의 언급을 유보하는 것이 그의 기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마리들이 쉽게 간과되거나 잘못 이해된다”(Gifford 13). 따라서 트레보 윌리엄즈(Trevor Williams)의 지적은 통찰력이 있다: “마비는 천부적인 것이 아니다; 반대로 특수한 사회적, 경제적 형성에서 기인된 것이다”(paralysis is not God-given; on the contrary, it arises from a specific social and economic formation)(Williams 1997, 54). 다시 말하면, 『더블린 사람들』의 공리적 주제인 “아일랜드의 정신적 마비”도 경제적 종속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조이스의 작품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아일랜드의 경제적 조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세기의 전환기의 아일랜드는 여전히 영국의 식민 지배 하에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도 영국의 식민경제 정책으로 인해 피폐한 상황이었다. 식민지 경제의 폐해가 심했던 1880-90년대 기간동안 조이스 집안은 더블린 외곽의 비교적 풍요로운 환경에서 점차 피폐한 더블린 도심으로 이사하면서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더블린 계급 조직의 정신적 교차점”(the psychic crossroads of the Dublin caste system)에 놓이게 되었다(Sherry 7-8). 이러한 중간적 위치는 조이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속한 계층이기도 하다. 빈센트 셰리(Vincent Sherry)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경제 상황이 어떻게 조이스의 예술정신과 연결되는가를 요약해 준다:

[더블린]의 산업의 부족은 안정된 노동계층의 실질적 부재를 설명하며, 조이스의 사회적 경험의 양극사이의 심하게 날카로운 분리를 형성했다—풍요로운 교외와 놀라울 정도의 도시의 빈곤. 따라서 임시직에 의존하는 “일반 노동자들”의 과잉 인구는 무너져 가는 화려한 조지아 시대의 집들을 가득 채웠다. (Sherry 8)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망명자의 신분으로 떠돌았기 때문에 조이스 가족은 경제적으로 불안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의 낭비벽이 심했던 이유로 친구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살았다. 하지만, 마크 오스틴

(Mark Osteen)이 지적하듯이, 조이스가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조이스에게는 그들과의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었다(18-19). 따라서 조이스의 빈곤은 오히려 그의 문학을 풍요롭게 한 원동력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사회의 중심이 아닌 주변에서 비판적 시각을 키울 수 있었고 동시에 빈곤이 인간적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더블린 사람들』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체로 조이스의 가정이 중류층에서 중, 하류층으로 하강하는 경제적 궤적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계층적으로 유동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이 영국의 식민지 통치로 비롯되었음을 조이스는 아일랜드의 빈곤의 원인을 지적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다.

현재 영국사람들은 아일랜드사람들을 가톨릭이고, 가난하고, 그리고 무식하다는 이유로 경멸한다; 그러나 그러한 일부에 대한 경멸은 정당화하기 쉬운 일이다. 영국의 법들이 아일랜드의 산업 — 특히 양모산업 — 을 망쳤기 때문에, 감자 기근 당시에 영국 정부의 무관심이 인구의 대부분을 굶주림으로 죽게 내버려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의 행정부하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범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판사들이 왕의 임금을 받고,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정부 관리가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돈을 받기 때문에 아일랜드가 가난한 것이다. (CW 166-67)

조이스가 인식한 아일랜드의 경제 상황은 근본적으로 영국의 식민통치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법조인이나 정부관리 및 공무원들은 막대한 월급을 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가톨릭 농민이나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영국의 식민통치가 아일랜드의 빈곤을 조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제적 현실이 『더블린 사람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보고자 한다.

## 2

『더블린 사람들』의 첫 이야기인 「자매들」(“The Sisters”)에서 언급된 세 단

어 중에서 'simony'가 지금까지 가장 논의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이유는 이 단어를 단순히 카톨릭에서 정의하는 '성직매매'라는 의미만으로 파악하여, 종교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만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더블린 사람들』 전반에 걸쳐 엿볼 수 있는 'simony'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이스의 인식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스티븐 히어로』(Stephen Hero)에서 언급한 'simony'의 의미는 단순히 '성직매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여성의 몸은 국가의 육체적 자산이다: 거래를 한다면, 여성은 창녀이든 기혼녀이든 일하는 독신이든 정부이든 간에 몸을 팔아야 한다. 그러나 여성은 (우연히도)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과 자유는 국가의 정신적 자산이 아니다. 국가가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성직매매(simony)는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에 대한 생각을 저역하기 때문이다. (SH 202-3)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조이스는 'simony'를 좁은 의미의 종교적 부정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인간의 영혼을 파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파는 매춘보다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simony'를 이해한다면 영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의 물질적 타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이 단어는 종교적 영역을 넘어서 사회의 다른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본다. 특히 위의 인용에서 여성의 몸을 국가의 '재산'으로 보고 있고, 매춘과의 비교에서 짐작컨대 'simony'를 육체적 매춘과 대비되는 정신적 매춘으로 보고 있고, 본래의 의미인 물질적 탐욕에 의한 죄인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주인공 소년이 'simony'라는 단어를 뜻보다는 소리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고려해서 본고에서는 'simony'를 우선적으로 "sin of money"로 보고, 다음으로 "sin of Simon"으로 보려고 한다. 첫 번째 의미는 '성직매매'에서 알 수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세 번 부정했던 시몬 베드로(Simon / Peter)의 배신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물질을 위해 식민지 통치자에게 민족의 지도자를 파는 가룟 유다의 배신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본다. 따라서 'simony'는 아일랜드 역사를 관통하는 배신의 주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영국의 식민통치하의 아일랜드의 경제 상황에서 물질적 가치를 우선하는 더블린

사람들의 피폐된 영혼의 모습이 바로 ‘simony’이며, 곧 아일랜드의 정신적 마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식민지 종속에서 비롯된 경제적 현실이 주는 좌절감은 「애러비」(“Araby”)에서 잘 나타난다. 주인공 소년은 맹간의 누이가 피정으로 인해 애러비 바자에 가지 못하게 되자 그녀에게 애러비 장에서 가서 선물을 사주기로 약속한다. 소년의 낭만적 동경의 대상인 ‘애러비 바자’는 1894년에 더블린에서 열렸는데, 맹간의 누이가 “화려한 바자(a splendid bazaar)”(*D* 23)라고 생각할 만큼 국제적인 상업적 행사였으며, 동시에 자비스(Jarvis) 거리의 병원의 개축 기금마련을 위한 지역적 자선 행사이기도 했다(Ehrlich 312). 이 행사를 위해서 특별열차를 증편했다는 것도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소년이 애러비 바자에 가고 싶다고 하자 숙모가 프리메이슨(Freemason)의 모임인가 물어본다든지, 삼촌이 아랍과는 관련이 별로 없는 당시 유행하던 캐롤라인 노튼(Caroline Norton)의 시 — “어느 아랍인의 자신의 말에 작별 — 를 아느냐고 묻는다든지 한 것은 애러비 바자가 큰 규모의 바자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소년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대규모의 바자를 즐길 수 있는 계층이 아니란 점을 나타낸다. 하루 종일 삼촌을 기다리던 소년은 늦게 돌아온 삼촌에게서 비교적 큰돈인 2실링을 받고 바쁜 심정으로 애러비 바자로 가는 기차를 타게된다. 봄벼야 할 기차가 텅 빈 것은 이미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이었다.

난 6 펜스 짜리 입구를 찾을 수가 없어서, 바자가 끝날까 하는 걱정에서 지쳐 보이는 남자에게 1 실링을 건네주고 입구를 통과해서 껌싸게 들어갔다. 들어가보니 회랑의 반쯤 높이에 둘러 친 커다란 복도에 서게 되었다. 거의 모든 가판이 문을 닫았고 대부분의 복도는 어둠에 묻혀 있었다. 나는 미사가 끝난 후의 성당을 지배하는 침묵 같은 것을 감지했다. (*D* 26)

늦게 도착한 소년은 어린이용 할인 입구를 찾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어른 입장료를 내고 들어감에 따라 예정보다 많은 돈을 쓰게 된다. 애러비 바자로 들어가는 회전식 입구를 통과한 것은 일종의 “통과의례(rite de passage)”이며, 결국 소년의 경제적 위상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각성의 의식과도 같다(Benstock 95).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은

후인 데다 열려 있는 상점마저 기차 요금과 입장료를 제외하고 남은 돈 8 펜스로는 살 수 없는 가격이 비싼 동양적인 수입품을 파는 곳이었다. “가게의 검은 입구의 양쪽에 서 있는 동양의 호위병같이 서 있는 거대한 향아리들”(D 27). 가게의 점원은 어린아이에게는 관심이 없고, 희롱적인 애정을 줄길 뿐이다: “나를 보더니 젊은 여자가 다가와서는 물건을 살 것인가 물었다. 목소리의 어조는 독려하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의무감에서 물어 본 것 같았다”(D 27). 여점원의 무관심은 소년이 ‘고객’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서라고 본다. 즉 소년이 맹간의 누이에게 뭔가를 사주고 싶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바로 어른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줄 만 한 물건도 없게 된 것이다. 소년은 맹간의 누이에게 선물을 사다 줄 만한 경제적 능력을 보여줄 수 없게 된 것이다. 소년의 주머니 안에서 부딪치는 동전에 비하여 가게의 점원의 동전이 내는 소리는 소년으로 하여금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한다. 소년의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은 조이스의 작품에서 낭만적 동경이 현실의 물질적 조건과 부딪쳐서 오는 것이다. 소년의 낭만적 사랑은 남녀의 희롱과 동전을 세는 소리로 대변되는 현실 속에서 부서져 버리고, 자신이 비참한 동물로 전락한 모습으로 느낄 뿐이다. 마크 오스틴이 지적하듯이, “simony’가 영혼의 가치를 오염시키듯이, 돈과 시장이 상상력을 오염시킨다”(19). 더구나 점원들이 영국에서 왔다는 점은 아일랜드가 영국 제국의 생산기지이기 보다는 소비시장으로서의 기능만 수행하고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종속적 경제구조는 더블린 사람들의 좌절감과 마비의 근본적 이유이기도 하다.

「경기가 끝난 후」(“After the Race”)는 영국의 식민지배에 따른 아일랜드 경제의 종속 상황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자동차 경주대회는 1902년 열린 고든 베넷 컵(Gordon Bennett Cup)에서 영국제 자동차가 우승하였기 때문에 대회 규정상 1903년에는 영국에서 개최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영국법과 상대적 인구밀도를 고려해 아일랜드-영국자동차 협회가 법률적 문제나 교통혼잡의 문제가 없는 대영제국의 일부인 아일랜드에서 이 경기를 열기로 하고 지원하게 된 것이다(Fairhall 388). 다시 말하면,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경기를 유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유치한 국제대회가 아니라,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개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식민지 종속성은 경주가 끝난 후 더블린 시

내로 들어오는 자동차들을 환영하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묘사에 잘 드러난다,

차들이 나스 거리의 흙을 고르게 구르는 구슬처럼 미끄러지듯 더블린 방향으로 들어왔다. 인치코어의 언덕에서 구경꾼들은 집으로 향해 가는 차들을 보기 위해 무리를 지어 모였고, 가난과 무능의 통로를 통과해서 대륙은 부와 산업의 상징인 차의 속력을 냈다. 때때로 몇 명의 사람들이 만족스럽게 억압당한 사람들의 환호를 높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친구인 프랑스의 푸른 차들에게 동정심이 갔다. (D 35)

자동차 행렬을 맞이하고 있는 빈민 지역인 “가난과 무기력의 통로”(the channel of poverty and inaction)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대륙의 “부와 산업”(wealth and industry)의 상징인 자동차는 극단적인 대조를 이룬다. 제임스 페어홀(James Fairhall)은 친영계 신문인 『아이리쉬 타임즈』(The Irish Times)가 이 자동차경주를 “아일랜드에 가져 올 금전적인 이득과 산업기술의 상징인 자동차 경주의 매력”(the race’s potential monetary benefits to Ireland and its glamour as a contest among men and machines representing the world’s most technologically advanced nations)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경기가 수천 파운드의 자금의 유입과 일시적이지만 일주일간의 경기동안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을 부각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387-88). 이러한 대규모의 자동차 경기를 단순히 구경꾼으로서 보게되는 피식민국가의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아일랜드의 중요한 교통수단은 자동차가 아니라 말이 끄는 마차와 더블린 시내와 외곽을 잇는 전차였다. 따라서 “평소 같지 않은 교통체증”(unusual traffic)이나 사람들이 자동차를 경외하는 모습에서 자동차 행렬은 드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코방귀 쐬는 자동차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보도에 모였다”(A little knot of people collected on the footpath to pay homage to the snorting motor, D 38). 자동차 경주 관리를 위해서 투입되는 수많은 경비와 관리 인원들을 아일랜드가 지원하였지만 가시적 경제적 이득을 계산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더블린 사람들은 식민 경제의 일부로서 환영인파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감사하게도 억압받는 사람들”(the gratefully oppressed)인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환호하는 대상은 아일랜드의 혁명의 배후세력인 프랑스의 차인 것이다. 푸른색으로 상징되는 프랑스

는 역사적으로 아일랜드의 독립을 지지하는 배후세력이었으며, 종교적으로도 같은 가톨릭 국가이다. 따라서 프랑스는 영국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지만, 아일랜드인들은 형제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고든 베넷 컵 자동차 경기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기술력을 검증하는 경연장이며, 유럽의 경제구조에서 자동차 산업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미 도일(Jimmy Doyle)의 프랑스 친구인 세구앵(Segouin)은 이번 경기에서 2등을 하여 프랑스에서 새로 시작하는 자동차 사업에 선 주문을 받아 놓은 상태이다. 이는 그만큼 고든 베넷 컵 자동차 경기가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보장하는 중요한 경기인 것이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경기 개최장소를 제공해 주었을 뿐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경제적 이득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된다. 지미가 세구앵과 친해지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세구앵이 부유한 인물로 알려졌고 부유한 티가 나기 때문이다: “그는 프랑스에 몇 개의 가장 큰 호텔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D 36); “더구나 세구앵은 분명한 부티가 났다”(D 38). 따라서 지미의 아버지는 지미를 영국에 유학시킨 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투자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투자는 훌륭한 것이었고, 세구앵은 친분을 통해 아일랜드의 적은 돈을 관련된 자본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인상을 그려져서 주었다”(D 37).

따라서 지미 도일은 아버지의 경제적 감각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지미는 사업문제에 있어서 아버지의 재빠름을 존경했다”(D 37). 하지만 지미의 아버지의 재빠름이란 급진적 민족주의자의 정치적 변절을 의미하며, 그러한 변절이 경제적 이득을 가져 온 셈이다.

지미의 아버지는 급진적인 민족주의자로 시작했지만 일찍 견해를 바꾸었다. 그는 킹스타운에서 푸줏간으로 돈을 벌었고 더블린과 근교에 상점을 열어 몇 배로 돈을 벌었다. 그는 운이 좋게도 경찰과의 계약을 따내었고 결국 더블린 신문에서 거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 (D 36).

하지만 지미의 아버지의 속물근성은 사소한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지미]가 복도에 서서 양복의 넥타이의 매듭에 마지막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위해서 확보한 종종 살 수 없는 자질을 확보해준 것이 상업적으로조차 만족한 듯했다”(as he stood in the hall giving a last

equation to the bows of his dress tie, his father may have felt *even commercially* satisfied at having secured for his son qualities often *unpurchasable*, D 38, 필자의 강조). 아버지의 이러한 경제인식을 물려받은 지미는 친분관계를 경제적 이득으로 계산하는 ‘simony’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유럽 각 나라의 경제력과 기술력의 각축장인 자동차 경주와는 다르지만 또 한번의 경쟁인 카드게임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참여한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인다: 프랑스인 세구앵, 캐나다 태생의 프랑스인 리비에(Rivière), 미국인 팔리(Farley), 영국인 루드(Routh), 헝가리인 빌로나(Villona), 그리고 아일랜드인 지미 도일이다. 각 인물이 대표하는 국가는 역사적, 정치적으로 아일랜드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헝가리인이 등장하는 것은 아더 그리피스(Arthur Griffith)의 저서 『헝가리의 부활』(*The Resurrection of Hungary*)이 아일랜드와 헝가리의 식민상황과 이원적 군주제(dual monarchy)로 연결되며, 미국은 이민자들로 구성된 단체들의 민족주의 노력이 활발하다는 점에서 아일랜드의 우방이다. 정치적 문제를 꺼낸 세구앵이 지미와 루드의 정치적 논쟁의 위험수위를 조절해야할 정도로 국적은 민감한 사안이었다. 더구나 나중에 참여하게 된 영국인 루드가 결국 도박판에서 돈을 탄다는 사실은 개인적인 의미를 넘어 영국의 식민지 종속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지미가 남발한 차용증들은 바로 아일랜드의 경제적 종속을 의미하는 기표인 것이다.

아일랜드의 경제적 종속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두 건달들」(*“Two Gallants”*)이다. 이는 레너헌(Lenehan)과 콜리(Corley)가 거리에서 목격한 하프를 연주하는 악사와 하프의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클럽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하프 연주자가 길에서 둘러선 청중들에게 연주하고 있었다. 그는 부주의하게 선을 뜯었고, 때로는 짹새게 새로 나타난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고, 때로는 지친 듯이 하늘을 보았다. 또한 그의 하프도 그의 겹옷이 무릎 근처로 떨어진 것도 주의하지 않고, 낯선 사람들의 눈과 주인의 손에도 실증을 느끼는 듯했다. (D 48)

여기에 언급된 클럽은 킬데어(Kildare) 거리에 있는 영국계 아일랜드 상류층(Anglo-Irish Protestant Ascendancy)을 위한 사교클럽으로 “통합주의의 피난처”(a haven of Unionism)이다(Werner 92). 이 현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거

리에서 하프 연주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둘러 싸여 연주를 한다. 하프가 클로버(shamrock)와 더불어 아일랜드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하프의 몸통(pillar)에 새겨진 반쯤 벗은 여인상은 성적 유혹을 암시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하프는 낯선 사람들의 시선뿐만 아니라, 주인의 손길마저도 거부하는 몸짓인 것이다. 물론 경제적 이득을 위한 위치선정이라는 점은 자명한 일이다. 킬데어 클럽 근처에서 하프 연주를 하는 것은 당연히 부유한 신교도들로부터 돈을 얻고자 한다는 점에서 아일랜드가 얼마나 영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따라서 이는 “아일랜드의 자기 배반의 정치적 표출”(a political manifestation of Irish self-betrayal)로 볼 수 있다(Werner 92). 게다가 이 하프 연주자가 부르는 노래는 아일랜드 고대 전설의 하나인 바다의 왕인 러(Lir)의 딸인 피오누엘라(Fionnuala)의 이야기를 다룬 곡이다. 전설에 따르면, 피오누엘라는 마법에 걸려 백조로 변하여 홀로 방황하는 운명을 타고 났는데, 아일랜드에서 첫 미사에서 성체가 봉헌되는 순간에 마법이 풀릴 것이라는 내용이다(Gifford 58-9). 가장 아일랜드적인 선율을 연주함으로써 친영계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은 아일랜드의 영혼을 파는 행위로 봐야 한다.

‘하녀—콜리—레너헨’의 경제적 먹이사슬은 아일랜드가 이중적 착취구조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하녀’(slavey) 자체도 하인(servant)과 노예(slave)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경제적 종속 상황을 잘 보여준다. 더구나 하녀가 일하는 집은 배곳거리(Baggot Street)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상류층 신교도 거주지역이다. 그녀는 콜리에게 켄련이나 담배를 훔쳐서 가져다 주고, 전철비도 내주는 등 복종적인 위치에 있다. 하녀가 절도를 했거나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얻었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계층인 하녀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팔아 물질적 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 ‘simony’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simony’가 정신적 매춘이라고 본다면, 콜리가 자신의 이름을 플로렌스 식으로 발음하면, 창녀를 연상시키는 ‘whorley’로 발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물질을 탐하는 콜리나 레너헨은 거머리에 불과한 것이다. 레너헨은 콜리가 하녀와 즐기는 동안 혼자서 허름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식사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빈곤한 경제사정을 드러낸다.

그걸 보니 [레너헌]은 자신의 주머니와 정신의 빈곤함을 강하게 느꼈다. 배회하는 일, 남을 등쳐먹는 일, 계략에 싫증을 느꼈다. 11월이면 서른 한 살이 된다.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을까? 자신의 집을 갖지 못할까? 따뜻한 불 옆에 앉아서 먹을 저녁이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생각했다. (D 51-52)

이제 나이도 서른 살이 넘지만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집도 없는 이러한 빈곤한 상황은 결국 콜리가 하녀를 통해 얻어 낸 일종의 전리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거머리(leech)”같은 존재인 레너헌을 콜리의 “사도(disciple)”라고 표현한 것은 배신의 주제와 더불어 ‘simony’와도 연결이 된다. 또한 콜리가 하녀에게서 얻은 금화는 흔히 “sovereign”이라고 불렀던 점을 감안하면 두 사람은 영국의 왕권과 경제력에 기생하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경제적 종속을 암시해주는 것이다.

육체적 매춘과 대비되는 정신적 매춘의 개념으로서의 ‘simony’를 보여주는 예들은 『더블린 사람들』에서 다양하게 목격된다. 「하숙집」(“The Boarding House”)에서도 주인 아줌마인 무니 부인(Mrs Mooney)은 남편의 무능력과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파산한 푸줏간 대신에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녀는 하숙집 운영으로 경제적 자립을 획득한 적극적인 여성이다. 하지만 하숙생들이 그녀를 창녀촌의 포주를 의미하는 속어인 “The Madam”이라고 부르고, 밥 도런(Bob Doran)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 “[폴리의] 어머니의 하숙집은 어떤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her mother's boarding house was beginning to get a certain fame, D 61). 이러한 맥락에서 무니 부인이 자신의 딸과 하숙생 도런의 관계를 묵인하여 왔으며, 은근히 방관했던 것도 단순한 엄마의 계략이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그녀가 개입해야 할 상황이 되자 그녀의 의도에서 속물근성을 드러내 보인다: “[무니 부인은] 할말이 있다고 전하러 하녀 메어리를 도런씨의 방에 올려 보내기 전에 모든 카드를 다 계산했다. 그녀는 이걸 자신이 있었다”(She counted all her cards again before sending Mary up to Mr Doran's room to say that she wished to speak with him. She felt sure she would win, D 60 필자의 강조). 그녀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무니 부인은 일종의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 도박에서 승산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반드시 보상은 있어야지. 남자에겐 팬찮은 일이다. 쾌락의 순간을 즐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다. 하지만 여자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어떤 엄마들은 몇 푼의 돈으로 사건을 무마하는 걸로 만족할 수도 있다. 그녀는 이런 경우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녀의 유일한 보상은 자신의 딸의 정조의 상실에 대한 보상이어야 한다: 즉, 결혼. (D 60 필자의 강조)

몇 푼의 돈과 딸의 순결의 상실을 보상받는 경우 대신에 다른 엄마들과는 달리 무니 부인이 생각한 것은 폴리와 밥 도런과의 결혼이다. 가톨릭 사회에서 결혼은 신성한 것인데, 무니 부인의 생각에는 도박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생각함으로써, 자신이 꿈꾸었던 결혼의 이상적인 측면을 현실적 차원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다.

밥 도런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보상을 생각한다. 도런은 13년 동안 커다란 가톨릭 와인상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했고, 자신의 가정을 꾸밀 수 있는 재정적 자립을 얻은 청년이다. 『더블린 사람들』에서 안정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소수중의 한 사람이다. 가톨릭 사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폴리와 스캔들은 자신이 이런 경제적 기반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도피는 바람직한 해결점이 되지 못함을 도런은 인식하고 있고, 폴리와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보상”은 온전한 의미에서의 결혼이 아니라, 가톨릭 사회의 도덕적 억압을 이용한 강압적인 것이며, 경제적 용어라는 점에서 ‘simony’라고 봐야 한다. 게다가 폴리가 “변태적 성모(a perverted madonna)”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도 ‘simony’라고 볼 수 있다.

「짝패들」(Counterparts)에서 패링턴(Farrington)은 아일랜드 북부 출신인 앨런 씨(Mr Allyne)의 법률사무소의 필경사로서 일하는 사람이다. 상사인 앨런 씨가 아일랜드 북부지역인 얼스터(Ulster) 출신이라는 점은 “영국 자본주의의 비호 아래 이루어진 더블린과 벨파스트의 불균형 적 경제개발”이라는 식민지 경제정책의 편중성을 상기시킨다(Williams 1998, 94). 예를 들어, 「이블린」(“Eveline”)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예전에는 들판이었던 곳에 건물이 들어섰는데 그 주인이 벨파스트(Belfast)에서 온 사람이다: “벨파스트 출신이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집들을 지었지. 작은 갈색 집들이 아니라, 빛나는 지붕을 가진 밝은 벽

들 색 집들올”(D 29). 북부지역의 부를 근거로 더블린 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더블린 사람들』에 나오는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은 대부분 북부로 간 상태이다. 「진흙」(“Clay”)의 마리아(Maria)의 동생이 보낸 “벨파스트로부터의 선물(a present from Belfast)”나 「은총」(“Grace”)에서 커넌(Kernan)의 두 아들이 하나는 글라스고우, 다른 하나는 벨파스트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미 앨런씨의 북부 억양을 흉내내어 눈밖에 난 그는 사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놓인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링턴은 근무 시간에도 술이 마시고 싶어서 나갔다 올 정도로 알코올중독에 빠진 대표적인 아일랜드인이다. 그는 잠시 술을 마시러 간 사이에 그가 빠뜨린 편지로 인해 다시 한번 추궁을 받게 된다. 퇴근 무렵이 되자 술값이 없어 가불을 얻어내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결국 시계 줄을 저당 잡히게 되는데, 『율리시즈』(Ulysses)에서 스티븐은 영국계 아일랜드인들에게는 그들의 영토도 전당포에 비유된 것을 연상시킨다: “그들의 나라 전당포(their land a pawnshop)(U 2. 47).” 그렇게 마련한 술값을 다 쓰고 나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게 되지만 돈을 다 써버린 그는 그 여자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러한 좌절감은 영국인 위더즈에게 조차 술을 샀다는 후회로 변한다. 게다가 ‘남자’라고 지칭되었듯이 남성적 힘의 상징인 그가 “국가의 명예(the national honour)”를 건 팔씨름 시합에서 왜소한 영국인 위더즈에게 맥없이 두 번이나 지고 만다. 이러한 패배의 수치심은 결국 경제적 빈곤함을 인식하면서 극대화된다.

[패링턴]은 숨막히게 하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수치심을 느꼈고 불만스러웠다; 심지어 술에 취한 느낌도 없었다; 그리고 주머니엔 겨우 2 펜스만 남았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해 저주를 했다. 그는 사무실에서 일을 망치고, 시계를 전당 잡혀서 돈을 다 써 버렸다; 그리고도 술에 취하지도 않았다. 그는 다시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따뜻한 냄새나는 술집으로 돌아가길 바랐다. 그는 애송이한테 두 번 이나 패함으로써 강한 자의 명성을 잃었다. (D 93)

돈이 성적 권력의 상징이라는 점은 패링턴의 분노에서 잘 드러난다. 그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은 영국에서 온 듯한 젊은 여성이 스쳐가면서 “죄송해요”라는 런던식 억양의 말을 유혹으로 받아들이고, 그녀에게 술 한잔 살 수 없게

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는 부분에서이다. 돈을 다 써버린 그는 힘의 대결에서도 지고, 성적인 면에서도 패배자가 된 것이다. 이러한 좌절은 고스란히 가정으로 이어져 가정폭력으로 나타난다.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문을 외는 어린 아들에게 자신의 좌절감을 폭력으로 표출하는 패링턴의 모습에서 아일랜드의 일면을 보게 된다. 즉, 가정에서의 폭력은 경제적 파탄에서 비롯된 좌절감에도 그 원인이 있음을 보여준다.

돈이 성적 권력의 상징으로 드러나는 또 다른 예를 「작은 구름」(“A Little Cloud”)에서 찾을 수 있다. 「작은 구름」에서 꼬마 챈들러(Little Chandler)는 런던에서 신문기자로 성공한 옛친구 갤러허(Gallaher)를 만나기로 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진다. 런던은 사대주의적 중심이며, 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다. 하지만 친구 갤러허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파리의 무랑 루즈(Moulin Rouge)는 바로 성적 타락과 매춘의 장소인데, 이러한 파리와 런던은 별 차이가 없음을 은근히 드러낸다:

—말해 봐, [챈들러는] 말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파리가 부도덕하냐?

이그내티어스 갤러허는 오른 손으로 포팔적인 자세를 취했다.

—모든 곳이 부도덕하지, 그는 말했다. 물론 파리에서 화려한 것을 보지. 예를 들어, 학생들의 파티를 가 봐. 그건 생생하지, 말하자면, ‘느슨한 여자들’(cocottes)이 옷을 벗을 때면.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인지 너도 알겠지?

#### [중 략]

—그렇다면 파리는 부도덕한 도시이네, 라고 꼬마 챈들러가 말했다, 조심스럽게—말하자면, 런던이나 더블린에 비교하면?

—런던! 이그내티어스 갤러허가 말했다. 오십보 백보지. 호건에게 물어봐. 내가 그가 런던에 왔을 때 구경시켜주었거든. (D 72)

갤러허는 타락한 세상을 경험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세상을 즐기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챈들러가 은근히 결혼은 해야 한다고 말하자 갤러허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이그내티어스 갤러허는 그를 잠시 동안 쳐다보더니 얘기를 했다:

—만약에 결혼하는 일이 생기면, 아마도 처절한 사랑이나 낭만적인 사랑의

성취 같은 것은 없을 거라는 것을 종자돈을 다 걸어도 좋을 거야. 난 돈과 결혼하려고 하거든. 내 상대 여자는 은행에 웬만큼 돈이 없으면 나한테는 소용없는 거지. (D 76 필자의 강조)

갤러허가 결혼에 관해서 말할 때 돈에 관한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 그가 결혼할 상대가 생긴다면 그 대상이 어떤 ‘여자’라기보다는 ‘돈’ 자체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수천 명의 돈 많은 독일이나 유대인 여자들”(D 77)을 알고 있으며, 그런 여자와 결혼할 것이라고 말한다. 챌들러는 갤러허에게 결혼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느낀다. 왜냐하면 자신의 결혼 생활이 자신의 이상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즉, 결혼은 갤러허가 즐기는 자유로운 연애의 끝이며, 시인이 되고자 하던 자신의 꿈을 무산시켜 버렸던 것이다. 챌들러는 사진 속의 아내의 눈을 바라보면서 왜 자신이 그런 여자와 결혼을 했는지 자문한다.

그는 그 질문에 간혀서 신경질적으로 방안을 둘러 봤다. 할부로 샀던 예쁜 가구에서 저급한 것을 발견했다. 아내 애니가 고른 것인데, 그게 그녀를 연상시켰다. 그것도 역시 단정하고 예뻐다. 자신의 삶에 대한 무기력한 분노가 자신의 내면에서 깨어났다. 자신은 이 작은 집에서 도망칠 수 있을까? 갤러허처럼 용감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너무 늦은 일일까? 자신은 런던에 갈 수 있을까? 아직도 할부금을 내야할 가구가 있군. 내가 책을 써서 출판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 자신에게 길을 열어줄지도 모를 텐데. (D 78-79)

꼬마 챌들러는 영국 저널리즘 세계에서 성공한 갤러허를 통해서 시인으로 등단하는 꿈을 키우지만, 그가 표방하는 특성은 결국 아일랜드 성(Irishness)의 감상(sentimentality)이다.

멜랑콜리가 그의 기질의 압도적인 분위기이지만, 이것은 믿음과 체념 그리고 단순한 기쁨의 반복으로 담금질된 멜랑콜리이다. 이것을 시집에서 표현한다면, 사람들은 귀 기울일 것이다. 대중적 인기를 끌지는 못하겠지만,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호소력을 가질 것이다. 아마도 영국 비평가들은 자신의 시의 멜랑콜리 분위기 때문에 켈트파의 한 사람으로 간주할 것이다. (D 68-9)

첼들러는 자신의 ‘아일랜드 성’(Irishness)을 이용해 영국의 문단에서 성공하는 상상을 한다. 이러한 상상은 사실 민족적 정체성을 영국에 파는 배신 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 특히 자신의 어머니의 성 — “멀론”(Malone) — 을 자신의 이름에 집어넣어서, 자신이 아일랜드 시인임을 강조하려는 것은 어머니·조국을 파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정신적 매춘인 ‘simony’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렇게 성공한다는 것은 겉려허처럼 “용감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아일랜드인의 정체성을 팔아 유럽의 퇴폐적 문화의 향유를 만끽하고 싶다는 타락한 욕망일 뿐이다.

『더블린 사람들』의 구조에서 공중생활(public life)에 해당되는 세 이야기 모두 돈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조이스가 아일랜드의 경제적 종속과 ‘simony’가 만연된 사회를 비판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스콧 클라인(Scott Klein)의 지적처럼, “대부분의 이야기들에서 직장 생활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재정적 어려움이 내러티브의 직접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 환유적 세부 사항에 의해 함축되어 있다”(Klein 118). 이러한 경제적 요소들이 함의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더블린 사람들』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뚜렷하게 돋보이지 않는 이유이다. 하지만 경제적 종속은 더블린 사람들의 정신적 마비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원회실의 퍼넬 추모일」(“Ivy Day in the Committee Room”)은 다른 이야기들과는 달리 명확한 역사적 시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욱 아일랜드의 정치적 상황이 중요한 배경이 된다. 시의원선거는 일반적으로 6월에 있는데 그 선거일을 퍼넬의 추모일인 10월 5일에 맞춘 것은 아마도 여기서 뽑힌 시의원들이 에드워드 7세의 아일랜드 방문 문제를 결정하는 상황이 그 다음해에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인 것 같다. 특히 시의원 선거에 참여한 세 명의 후보 중에서 한 명의 보수진영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야기된 양상은 민족주의 진영으로 보수파들이 흡수되어 정치적 색의 선명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크로프톤 씨]는 보수진영 후보인 월킨스 씨의 선거운동원이었다. 하지만 보수당이 후보를 사퇴시켰을 때, 차선의 선택으로 민족주의 후보를 지지하여 티어니 씨를 위해 일하게 되었다”(D 128). 이러한 정치적 변절의 이유는 바로 돈이며, 선거운동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도 돈이다.

하인즈 씨가 벽난로 선반에 기대어 물었다:

— 그가 아직 여러분에게 돈을 안 주었나요?

— 아직, 오코노 씨가 대답했다. 오늘밤 그가 우리를 궁지에 내버려두지 않기를 바래.

하인즈 씨는 웃었다.

— 오, 그는 돈을 줄 거야. 걱정하지마, 라고 그는 말했다. (D 117)

선거자금을 기다리는 그들은 영국 국왕의 더블린 방문에 관한 논쟁을 벌인다. 그런 논의가 귀찮은 듯 오코노 씨는 오로지 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가 돈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야”(I wish he'd turn up with the spondulics, D 119). 하지만 그들에게 보내 온 것은 술뿐이었다. 당시 주류업을 기반으로 한 상인들이 시의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DI 108). 특히 선거운동원들이 민족주의계열 후보 티어니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그의 경제적 능력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죠, 라고 내가 말했다. 그는 이 나라에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찬성할 거예요 그는 세금도 많이 내죠, 라고 내가 말했죠. 그는 커다란 짐도 갖고 있고 사업체도 몇 개 있죠 그리고 세금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낮추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는 뛰어나고 존경받는 시민이죠, 라고 내가 말했다, 게다가 빈민보호위원이고 . . . (D 128)

결국 민족주의 진영 후보인 티어니(Tierney)가 나라에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거라는 언급에서 에드워드 7세의 방문과 관련된 논의에서 결국 자본의 유입을 위해 영국 국왕의 더블린 방문을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하게 될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 이런 페니언들 중에는, 굳이 물어 본다면, 약간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있지. 헨치 씨가 말했다. 그런 웃기는 사람들에 관해서 나의 개인적이고 솔직한 의견을 알고 싶나? 난 그들 중의 반은 총독부의 녹을 먹고 있다고 믿지.

—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지, 라고 노인이 말했다.

— 오! 하지만 난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헨치 씨가 말했다. 그들은 총독부 끄나풀이지 . . . 하인즈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 . . 아니,

제기랄, 내 생각에는 그는 한수 위라고 생각해 . . . 하지만 사팔뜨기의 어떤 작은 신사—내가 말하는 애국자가 누군지 알지?

오코노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씨 경감의 직계 후손이 있지, 굳이 얘기하자면! 오! 애국자의 피끓는 가슴! 그는 4 펜스에 나라를 팔아먹을 친구지—에이!—무릎 꿇고 전능의 예수님에게 팔아먹을 나라가 있음을 감사하지. (D 112-13)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헨치가 언급한 총독부의 밀고자를 의미하는 “총독부 꼬나풀(Castle hacks)”이다.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garrison-hacks”에서 처럼 ‘창녀’를 의미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앞서 조이스가 언급한 ‘simony’의 정의를 생각할 때, 몸을 파는 창녀에 비해 그들이 영혼을 파는 ‘simony’를 저지르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1798년 울프 톤(Wolfe Tone)의 혁명 세력 중에서 에드워드 핏제럴드(Edward Fitzgerald) 경과 1803년의 로버트 에밋(Robert Emmet)을 체포했던 씨 경감의 자손을 지적하면서,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음을 전능하신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simony’가 아일랜드의 배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배신의 이면에는 바로 경제적인 욕망이 깔려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헨치의 다음의 지적도 에드워드 7세의 영국방문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경제현실을 고려한 발언을 한다.

내가 늙은 관리인에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자본이지. 왕의 아일랜드 방문은 이 나라에 많은 돈이 유입되는 것을 의미하지. 더블린 시민들은 해택을 입을 것이야. 한번 보라고, 부둣가의 공장들을, 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단지 방앗간, 조선소, 공장 같은 옛날 산업들만 운영한다면 나라에 있는 돈을 보라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본이야. (D 118)

조이스는 에드워드 7세의 아일랜드 방문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 . 영국 왕을 시의 입구에서 영접하자고 시장을 설득하려는 활발한 논란이 항상 있지. 그러나 사실 더블린에 들어왔던 선왕 빅토리아 여왕은 치안장관의 격식을 차리지 않은 영접에 만족했었지, 왜냐하면 시장이 그 영광을 거절했기 때문예. (CW 163)

조이스가 위안을 삼고 있었던 것은 시장이 직접 영접하지 않아 영국 국왕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못한 점이었다. 왜냐하면 1903년 에드워드 7세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 더블린 시의회는 영국 국왕의 환영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더블린 시내가 아닌 경계선에 위치한 볼즈브리지(Ballsbridge)에서 성대하게 거행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일이다. 이러한 성대한 환영식에 관해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바로 시의원들이었다. 결국은 외국 국왕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이다.

「어머니」(“A Mother”)에서도 돈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결혼 전 데블린(Devlin) 양이던 키어니 부인(Mrs Kearney)은 자신의 결혼에 대한 낭만적 꿈을 몰래 ‘터키의 기쁨’(Turkish Delight)라는 초콜렛을 먹으면서 충족시켜야 했던 여자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인 구두 제조업자와 결혼을 했다. 특히 남편 키어니 씨는 “술도 안 먹고, 검소하며, 신앙심이 두터운”(sober, thrifty, and pious) 사람으로 “모범적인 아버지”(a model father)이다: “그는 매주 적은 돈을 계를 통해 적립하여 두 딸들이 24살이 되었을 때 각자를 위해 일 백 파운드 정도의 결혼 지참금을 확보했다”(D 135). 게다가 큰딸은 좋은 수녀원에 보내서 교육을 시켜 음악과 불어를 배우게 하고, 왕립 음악 학교에 다니게 해 줄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얘गी든 아니든, 키어니 부인이 7월쯤이면 휴가를 떠날 거라고 얘गी할 정도의 가정이다. 키어니 부인의 낭만적 동경과 좌절은 자신의 딸에게 강요되어 나타난다.

아일랜드 문예부흥 운동이 가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을 때, 키어니 부인은 딸의 이름을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아일랜드어 선생을 집으로 불렀다. 캐쓰린과 그녀의 동생은 친구들에게 아일랜드어로 쓰여진 그림엽서를 주고받곤 했다. 키어니 씨가 가족과 함께 성당에 오는 특별한 일요일이면 미사가 끝난 후 성당 거리 한쪽 구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D 135)

그녀는 아일랜드 문예부흥과 함께 부상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편승해서 자신의 딸의 이름이 아일랜드의 전통적 상징인 “캐쓰린 니 홀러헨”(Kathleen ni Houlihan)을 연상시킨다는 점을 이용하고, 게일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녀의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 따라서 게일어 선생에게 과외교습을 받기까지

한다. 또한 평소에는 나가지 않다가도 “특별한” 행사가 있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에는 성당에 나가서 가톨릭 민족주의자들과 친분을 쌓음으로써 딸을 아일랜드 음악계에 진출시키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꿈을 자신의 딸에게서 실현하려는 의도가 엿보이지만 결국 이런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캐쓰런은 “에이레 아부 협회”(the Eire Abu Society)가 주관하는 연주회에 참여하게 되어, 4일간의 공연에서 반주자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 모든 것을 홀로헨(Mr Holohan)과 주선하면서, 키어니 부인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것이 부드럽게 진행되었다. 키어니 부인은 캐쓰런의 드레스의 앞에 놓기 위해 브라운 토마스 상점에서 아름다운 은은한 핑크빛 셔무즈를 샀지. 가격이 상당했지만 조금 낭비하는 것이 정당한 경우도 있는 거지. 그녀는 입장권을 보내지 않으면 오지 않을 친구들에게 마지막 공연의 입장권 수십 장을 사서 보냈지. (D 136)

키어니 부인은 비교적 고급제품을 취급하는 상점인 브라운 토마스 상점에서 딸의 무대의상을 위해 값비싼 셔무즈 장식을 사면서, 비싸지만, 이러한 비용의 지출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더구나 2 쉐링짜리 마지막 날 공연 입장권을 많이 사서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을 친구들에게 보낼 정도로 많은 투자를 한다. 이러한 투자는 바로 딸의 화려한 데뷔를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돈과 그에 따른 자존심의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한다.

[키어니 부인]은 핏즈패트릭을 막에서 불러내서는 자신의 딸이 네 번의 공연에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물론 그 협회가 공연을 네 번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계약에 따라서 그녀는 원래 약속되었던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D 139)

키어니 부인은 핏즈패트릭 씨를 불러 네 번의 공연에 따른 계약을 강조하며, 관객의 부족으로 일정을 하루 당긴 것과 상관없이 계약을 이행할 것을 강

조한다. 게다가 최초의 계약에 따라 원래 주기로 한 금액을 다 받아야만 공연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핏즈패트릭과 홀로헨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후에 지불할 것이라고 통보한다.

공연의 첫 번째 부분이 끝나자마자 핏즈패트릭 씨와 홀로헨 씨가 키어니 부인에게 와서 나머지 4 기니는 다음 화요일에 위원회 모임이후 지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딸이 두 번째 부분에 연주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한푼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 146-47)

위원회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키어니 부인에게는 돈의 액수보다는 자존심의 문제로 여겨진다. 따라서 4 파운드의 돈을 받지 못하면 무대에 오르지 않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기다린다: “그녀는 4 파운드를 자신이 손에 쥐지 못하면 무대에 한 발짝도 오르지 않겠다”(D 147). 이러한 협박성 발언도 힐리(Healy) 양이 대신 반주해 줄 것에 동의함으로써 무산되고, 투자한 돈은 고사하고 명성에도 손상을 받고 공연장을 황급히 빠져나가 버리고 만다. 이 일은 조이스가 아홉 살에 썼다는 시—“힐리, 너마저도”(Et tu, Healy)—에서도 알 수 있듯이, 퍼넬에 대한 힐리의 배신을 암시하고 있다고 본다. 그녀가 단지 돈을 위해서 키어니 양을 배신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키어니 부인의 고집스러운 계약의 이행은 결국 자신의 딸이 아일랜드의 음악세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특히 『프리먼즈 저널』(*The Freeman's Journal*)의 기사를 대신해서 공연기사를 쓰게 될 사람인 오매든 버크(O'Madden Burke)의 평가는 결정적이다: “당신이 적절한 일을 한 거요, 홀로헨, 이라고 우산에 기대어 긍정적으로 오매든 버크 씨가 말했다”(D 148). 결국 돈으로 표상 되는 권력의 경쟁에서, 마치 퍼넬이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몰락했듯이, 키어니 부인은 ‘위원회’라는 조직의 힘에 패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교에 해당되는 「은총」(“Grace”)은 지금까지 ‘simony’의 논의의 핵심에 놓여 있었다. 대부분이 ‘simony’를 “성직매매”와 관련하여 크게 단테의 신곡과의 관련성 그리고 퍼든 신부의 설교의 물질주의에 집중되어왔다. 마곳 노리스(Margot Norris)의 지적은 새로운 출발점을 제공한다: “전통적으로 단테의 『신곡』(*The Divine Comedy*)을 기반으로 구성된 구원의 신화로 이해되어

은 「은총」은 아일랜드의 경제적 압박의 폭력성을 부정하고 억압하는 일에 담화의 이념적 공모를 표현한다.” ‘simony’를 단순히 성직매매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grace’도 단순히 ‘은총’이라는 의미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조이스의 언어적 감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잭슨(Jackson)과 맥긴리(McGinley)도 ‘은총’의 두 가지 의미를 지적하고 있다(ID 156-57, D 294). 첫 번째는 “영적인 은총”(spiritual grace)이며, 이러한 신성한 은총은 존엄성(dignity)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날 뿐이다. 다른 하나는 “금전적 은총”(financial grace)로 채무를 갚기 전까지의 지불유예기간을 의미한다. 처음 의도되었던 『더블린 사람들』의 구조 — 마지막 「죽은 자」(“The Dead”)를 제외한 — 에서 처음 이야기와 마지막 이야기는 모두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대칭성을 가지면서, ‘simony’라는 주제 면에서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자매들”에서의 신부님의 육체적인 마비는 “은총”에서의 퍼든 신부의 설교에서 드러나는 영적인 마비와도 관련이 있다.

커넌의 실족사건은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폭력적으로 이루어진 금전거래”에 의한 것이다(Norris 34). 왜냐하면 커넌이 단순한 만취상태에서 실족에 의한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의사를 불렀을 테지만 경찰을 불렀다는 것은 폭력 사건임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Klein 114). 특히 혀가 약간 잘렸다는 것은 주먹으로 턱을 맞는 바람에 생긴 상해로 볼 수 있다. 우선 커넌이 술집에서 같이 있었던 두 사람중의 한 사람은 하포드 씨(Mr. Harford)로 밝혀지는데, 그의 출신에 관한 언급은 중요하다.

[하포드]는 고리로 노동자들에게 작은 돈을 빌려 주면서 모호한 금융업자로 삶을 시작했다. 나중에 그는 리피 대부 은행의 뚱뚱하고 키 작은 골드버그(Mr. Goldberg) 씨의 동업자가 되었다. 그가 유대인의 윤리적 규범을 수용했지만, , 직접 나서거나 대리인이거나 그가 돈을 받기 위해 괴롭힐 때마다, 동료 가톨릭인들은 그를 아일랜드 유대인이며 문맹자라고 심하게 비난하고 백치 아들을 통해서 고리대금에 대한 신의 불인정을 나타낸 것으로 여겼다. (D 158-59)

하지만 나머지 한 사람에 관해서는 커넌도 아는 사람이 아니며,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은 태도에서 하포드가 부채를 받아내기 위해 고용한 폭력배일 가

능성이 높다.

우선 금주를 위한 피정에 참석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흥미롭다. 예를 들어, 포거티 씨(Mr Fogarty)의 경우는 사업에 실패한 사람으로 금주를 위한 피정에 술을 가져온 인물이다.

포커티 씨는 겸손한 상인이었다. 그는 그의 경제적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급의 양조업자들과 연결되는 바람에 더블린에서 허가받은 가게에서도 실패했다. 그는 글래스네빈 거리에서 작은 가게를 열었는데, 자신의 태도가 그 지역의 부인들의 비위를 잘 맞추었다고 자화자찬했다. (D 166)

포거티 씨도 금주를 위한 피정에 참석했다는 것은 분명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스키를 가져와서 참석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마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피정의 효과를 의심하게 한다. 또한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서 안심을 하는 커넌의 모습에서 당시 알코올 중독이 보편화되었음을 잘 알 수 있다.

퍼든 신부(Father Purdon)의 설교가 주제로 정한 성경구절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로 흔히 부정직한 청지기 비유라고 불려지는 것이다. 하지만 퍼든 신부가 사용한 성경 구절에서 “실패”(fail)를 “죽음”(die)으로 잘못 인용함으로써, 세속적 빛과 영혼의 빛을 중첩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Klein 122). 따라서 기독교의 신도 영적인 빛을 받아내려는 또 다른 형태의 강박과 동일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Klein 122-23).

[퍼든 신부]는 사업가들에게 말하고자 하며, 사업가답게 말하려고 한다. 은유를 사용하자면, 그는 그들의 영적인 회계사(spiritual accountant)임을 자처한다고 말했다; 청중 각자가 자신의 영적인 삶의 장부를 펴서 그들이 양심과 정확하게 대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D 174)

프릿츠 쟈(Fitz Senn)은 “로고스”(logos)가 “계정”(account)의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청지기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은 영혼의 빛을 받아내는 고리대금업자가 되어 버린 것이라고 말한다(Senn 252). 퍼든 신부는 물신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업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부 자신을 회계사의 역할로 비유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을 물질적 가치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simoniac”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simony’는 정신적 매춘이며, 영혼을 물질적 가치로 치환하려는 욕망의 죄인 것이다. 그러므로 『더블린 사람들』의 정신적 마비는 이러한 경제적 조건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 3

다시 강조하지만 조이스의 아일랜드의 영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에 대한 인식은 그의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 『더블린 사람들』에서도 그의 사회주의적 성향의 일면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가슴아픈 사건」(“A Painful Case”)에서 더피 씨(Mr Duffy)는 씨니코 부인(Mrs Sinico)과 친해지면서, 자신이 사회주의당에 관여했었던 사실을 고백한다(D 106). 「위원회실의 퍼넬 기념일」에서도 시의원에 출마한 후보 중에서 콜건(Colgan)은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노동당 대표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조이스가 퍼넬 몰락 이후에 가장 존경하던 아일랜드 민족지도자는 아더 그리피스였다. 특히 그의 경제정책의 비전은 아일랜드의 긍정적 미래를 예시하고 있다고 보고, 가장 바람직한 실천적인 정책으로 여겼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그리피스가 “해외에는 영사업무 그리고 국내에는 아일랜드 은행을 설립”을 주장했고, 더블린의 유통구조의 불합리성, 그리고 아일랜드의 상업문화를 촉발시킨 점들을 들어 조이스는 그의 경제정책을 지지하였다(Ellmann 237). 그만큼 조이스는 아일랜드의 경제구조가 식민지 경제체제로 영국에 종속되었음을 인식하였고, 이러한 경제적 종속은 초기의 『더블린 사람들』에 나타난 정신적 마비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더블린 사람들』에 나타난 경제적 종속의 문제가 눈에 띄지 않는 이유가 바로 마비의 특성이기도 하다. 느끼지 못하는 것이 마비인 것처럼 아일랜드인에게는 자신들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1800년 영국에 합병(Act of Union)된 이후 약 100년 동안을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아일랜드가 독립된 국가라는 인식보다는 영국제국의 일부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조이스가 경제적인 문제를 정치적 선전(propaganda)처럼 거칠고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이유도 이러한 오랜 식민지 통치의 결과로 현실이 경제적 종속에 둔감한 마비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미 경제적 종속은 쉽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구조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조이스의 이러한 통찰은 『더블린 사람들』을 넘어 『율리시즈』에서도 이어진다.

<연세대>

## 인용 문헌

- Benstock, Bernard. *Narrative Con/Texts in Dubliners*.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4.
- Bosinelli, Rosa M. Bollettieri, and Harold F. Mosher, Jr., eds. *ReJoycing: New Readings of Dubliners*. Lexington: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1998.
- Brown, Terence. "Introduction." *Dubliners*. London: Penguin, 1992. vii-xlix.
- Cheng, Vincent J. *Joyce, Race, and Empire*. Cambridge: Cambridge UP, 1995.
- Deane, Seamus. "Dead ends: Joyce's Finest Moments." *Semicolonial Joyce*. Eds. Derek Attridge and Marjorie Howes. Cambridge: Cambridge UP, 2000. 21-36.
- Ehrlich, Heyward. "'Araby' in Context: The 'Splendid Bazaar,' Irish Orientalism, and James Clarence Mangan." *JJQ* 35.2/3(Winter/Spring 1998): 309-31.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Rev. ed. Oxford: Oxford UP, 1982.
- Fairhall, James. "Big-power Politics and Colonial Economics: The Gordon Bennett Cup Race and 'After the Race.'" *JJQ* 28(Winter 1991): 387-97.
- Joyce, James. *Dubliners*. London: Penguin, 1992. References to this edition will be given with D and page numbers in a parenthesis.
- \_\_\_\_\_. *James Joyce's Dubliners: An Illustrated Edition with Annotations*.

- Eds. John Wyse Jackson and Bernard McGinley. New York: St. Martin's, 1993. References to this edition will be given with *DI* and page numbers in a parenthesis.
- Klein, Scott W. "Strongarming in 'Grace.'" *JJQ* 37.1/2 (Fall 1999/Winter 2000): 113-26.
- Nash, John. "Counterparts before the Law: Mimicry and Exclusion." *Re: Joyce, Text. Culture. Politics*. Eds. John Brannigan, Geoff Ward, and Julian Wolfreys. London: Macmillan, 1998. 3-16.
- Norris, Margot. *Joyce's Web: The Social Unraveling of Modernism*.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92.
- Osteen, Mark. *The Economy of Ulysses: Making Both Ends Meet*. Syracuse: Syracuse UP, 1995.
- Schneider, Ulrich. "Titles in *Dubliners*." *ReJoycing: New Readings of Dubliners*. Eds. Rosa M. Bollettieri Bosinelli and Harold F. Mosher. Lexington: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1998. 195-205.
- Senn, Fritz. "Gnomon Inverted." *ReJoycing: New Readings of Dubliners*. Eds. Rosa M. Bollettieri Bosinelli and Harold F. Mosher. Lexington: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1998. 249-57.
- Sherry, Vincent. *Joyce: Ulysses*. Cambridge: Cambridge UP, 1994.
- Williams, Trevor. "No Cheer for 'the Gratefully Oppressed': Ideology in Joyce's *Dubliners*." *ReJoycing: New Readings of Dubliners*. Eds. Rosa M. Bollettieri Bosinelli and Harold F. Mosher. Lexington: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1998. 87-109.
- \_\_\_\_\_. *Reading Ulysses Politically*. Gainesville: UP of Florida, 1997.

**Abstract.**Colonial Economy in *Dubliners*

## — A New Perspective on 'Simony' —

Kiheon Nam

It has been rare to discuss economic problems in literature, perhaps because focusing on spiritual, ideological, or moral themes has been a long tradition in literary criticism. Joyce's Ireland was poor because she was colonized. The uneven development of Dublin and Belfast in the nineteenth century produced economic problems—poverty, unemployment, and paralysis. In terms of class, Joyce's family was at “the psychic crossroads of the Dublin caste system,” from which Joyce must have derived his sense of being in between. I will argue that *Dubliners* articulates, if in a covert way, economic problems derived from Ireland's colonial dependence on the British economic powers. In this respect, I will focus on the significance of “simony” mentioned in ‘The Sisters.’

Joyce once mentioned ‘simony’ in a different context. In comparison with prostitution, which is a sin of selling the (female) body, ‘simony’ is a sin of selling the soul, since it is not only a sin of money, but also a sin of Simon, who betrayed himself three times when he was asked whether he knew of Christ. Many characters of *Dubliners* are subject to and frustrated by financial problems. In “Araby,” the boy narrator wants to buy something for Mangan's sister in Araby bazaar, a fund-raising bazaar for renovating the Jarvis Hospital. When he gets to the Araby bazaar at last, he cannot help paying the entrance fee for adults for fear that the bazaar might be over. This “rite of passage” makes him realize his financial situation, thus making him feel “like an animal.” In ‘After the Race,’ the Gordon Bennett Cup race was supposed to have been held in England, since the last year's victor was the English car. But

the Irish-English Automobile Association decided that it would be held in Ireland, part of the English empire. Despite the potential benefits that the race could bring about, Ireland was not a primary beneficiary of the possible economic boon in that, while the race was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industrial technology, Ireland had no automobile industry visible in her land. Therefore, the cheers of the “gratefully oppressed” are only those of the colonized.

The “public life” stories are also engaged in financial problems. In “Ivy Day in the Committee Room,” the canvassers for the election discuss the issue of welcoming King Edward’s visit to Dublin. Mr. Henchy emphasizes on the economic benefit they could get from the royal visit. In “A Mother,” Mrs. Kearney simonizes the Irishness of her daughter’s name, which reminds the Irish of “Kathleen ni Houlihan,” a traditional figure representing Ireland. And in “Grace,” obviously a story about simony, Mr. Kernan’s incident must have been related to financial problems when he cut his tongue a little bit. One of the men whom he met in the pub is Mr. Harford, a usurious money-lender, and perhaps, he employs a strongarmed man to get money from Mr. Kernan. In this sense, the meaning of “grace” could be a period of grace in the financial sense of the word. In his sermon on the worship of Mammon, Father Purdon regards himself as a “spiritual accountant,” and commits a sin of simony by making spiritual things based on material values.

Joyce’s interest in socialism pervades in his aesthetics. So his *Dubliners* articulates the financial problems derived from the British occupation of Ireland. The too obvious theme of *Dubliners*, spiritual paralysis, derives from this economic subjugation to England. Therefore, simony is a sin of selling Erin’s soul to the British master.